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5일 목요일 음 8월 7일 (14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낮 동안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위험. Rows show safety information and risk levels.

월드뉴스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

요구사항 남아 '불씨' 남겨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4가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았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철폐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 죄인 인도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 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캐리 램 장관의 송환법 철회 발표로 홍콩의 장기 시위 사태를 조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된 셈이어서 사태가 진정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목요일론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부장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다.

제주 대표 선수단은 전란의 와중인 1951년 제32회 전국체전 첫 출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대회 참가를 이어 오면서 제주 체육의 경쟁력을 키워왔고, 1998년 제79회와 2002년 제83회, 2014년 제95회 대회는 제주에서 직접 개최하기도 하면서 전국의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주 체육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100회를 맞아 제

세기를 뛰어 넘어 또 다른 100년을 향해

1회 대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열리고,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스포츠 환경이 더해져 더욱 주목 받고 있다.

1920년 조선체육회 결성 이후 야구 단일 종목으로 처음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효시로 기록되고 있는데 100회를 맞이하면서 47개(정식 45개, 시범 2개) 종목에 3만여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발전해 왔다.

1957년 제38회 부산 대회로 시작된 지방 순회 개최는 지역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지방 체육 균형 발전을 견인하면서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이 대회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상호 경쟁을 펼치며 배출한 우수 선수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한국을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활동이 근간이 되는 시설 인프라, 지도자와 선수, 경기 프로그램, 참여 관중의 유

기적 관계를 망라하는 한국 체육 발전의 핵심 축이 돼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온 만큼 100회 시점에 어떤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 붙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대회를 '평화의 체전. 하나 되는 통합의 체전, 미래 100년을 그려 나가는 체전'으로 준비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사실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국 시·도간의 경쟁'이 자리하고 있고, 그 경쟁 과정을 견인하면서 '전국 시·도간의 경쟁'이 자리잡았다. 이 대회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상호 경쟁을 펼치며 배출한 우수 선수들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한국을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활동이 근간이 되는 시설 인프라, 지도자와 선수, 경기 프로그램, 참여 관중의 유

기적 관계를 망라하는 한국 체육 발전의 핵심 축이 돼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온 만큼 100회 시점에 어떤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 붙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체육 단계가 통합이 되고 상호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고 있는 터에 그간 경쟁관계가 우선되면서 발생한 부조리 극복을 위한 '한국 체육 혁신안'이 발표되는가 하면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겠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으로 체육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 어수선함을 100회의 연륜을 이어오면서 국내 체육 활동을 망라해 온 전국체육대회에 녹여 넣고, 또 다른 100년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제주 체육도 대회 참가를 통해 미래 비전을 모색해 거듭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열린마당

도로 위 무질서 바로잡는 '암행순찰차'



양재형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암행순찰차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10여개 주요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한 제도로 경찰의 눈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고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3월에 경부선 고속도로에 2대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같은 해 7월 8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큰 활약을 펼쳤다. 단속 및 예방효과가 효과적으로 검증되면서 그 해 9월에 12대를 증차, 총 22대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활동 중이다.

전국 확대시행 1년 후 일반순찰차 대비 단속과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시기대 교통사고는 18.9%, 사망 1.9%, 부상 21.0%가 감소했으며, 난폭운전 단속은 290대, 전동차로유발

단속 2.1배, 갓길통행 단속 2.4배가 증가하는 등 매우 큰 효과를 보였다. 제주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43.8%가 특정도로(일주도·평화로·변영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암행순찰차 도입을 적극 검토해 1대를 도입하게 됐고, 9월 한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암행순찰차는 특정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지만 그 외에도 주주지를 관통하는 일주도로면 마을을 중심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및 무리한 끼어들기·급정지 등 보복운전의 원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차질 단속을 위한 단속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암행순찰차는 악성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별 단속,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 만큼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한슬기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곧 민족의 명절 한가위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면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우편함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7월에 '1기분'이라고 쓰여진 주택 고지서를 받았던 이번달에도 '2기분'이 부과되니 혼동 없기를 바란다.

재산세(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되며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토지의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나대지·잡종지 0.2%~0.5%), 별도합산(영업용·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0.2%~0.4%), 분리과세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처럼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효용 가치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율인 0.07%로 과세하고 골프장 및 고급요락장처럼 사치성 용도인 경우 4%로 과세한다.

민원인분들께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이 '토지분 고지서 2개 받았다'는 질문이다. 토지분 고지서는 읍·면지역, 동지역대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를 읍·면과 동지역 모두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세(토지)가 2개로 고지되고 합산면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료 3%의 가산금 부담도 덜고 조기납세자 경품당첨도 기대해보면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수 (Waterproofing) advertisement for National90, listing services like basement waterproofing and FRP coating.

의료안내 (Medical Guide) advertisement for Donggu Dental Clinic,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제주도정 소식 (Jeju News) advertisement listing government services like accident compensation and property tax.

서귀포시정 소식 (Seogwiipo News) advertisement listing municipal services like library and sports center.